

## 사례(29) 아크로나이넨(ACRO NAINEN)

### - 소형 엔진용 원심클러치로 압도적인 국내시장 점유율 -

- 동사는 정밀부품의 클러치, 피스톤, 브레이크를 동시에 제조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서, 소형 엔진용 원심클러치 분야에서 일본시장점유율 90%이상을 점하고 있음
- 제조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동사의 야심작인 다이캐스트피스톤과 터치패널은,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것, 다른 곳보다 우수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자세에서 탄생되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음
- 정밀부품의 클러치, 피스톤, 브레이크를 동시에 제조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가 와카야마에 있음
  - 아크로나이넨. 정점을 의미하는 아크로(ACRO)의 이전 사명과, 와카야마 내연기를 합쳐, 2003년에 도전하고 정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 생각을 담은 현재 사명으로 바꿨음
  - 다이캐스트 주조기술을 살려, 여러가지 정밀부품을 제조. 소형 엔진용 원심클러치 분야에서 일본시장점유율 90% 이상으로 확고한 지위를 쌓고 있음

#### □ 클러치가 필요하면 와카야마에 가라

- 창업자 가쓰모토 기이치(勝本 僖一) 회장이 1963년 11월 자동차와 이륜차의 엔진수리공장, 와카야마내연기공작소를 발족시킨 것이 시작임
  - 그러나 일생을 걸고 하는 일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, 제조업으로 전환했음
  - 처음에는 이륜차브레이크 라이닝(마찰재)의 배합기술을 살려 사업을 확대하고 다음에 클러치사업에 참여했음
- 1970년대 중반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급속히 보급된 시기로, 클러치업체는 이들 수주에 대응하는데 바빴음. 충격을 받은 것이 농업기계 업체들임
- 자동차와 이륜차보다 시장규모가 적기 때문인지 농업기계에서 사용되는 소형엔진용 원심클러치는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었음
- 그러한 가운데 어느 대형 농업기계업체에 방문하여 환대와 대량수주를 받았다고 함
  - 타이밍 좋게 찾아온 기회를 포착하고 드디어 농업기계 업체들 사이에서 원심클러치가 필요하면 와카야마에 가라는 포어가 등장하기도 했음
  - 대기업이 하지 않는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버렸다고 가쓰모토 회장은 회상하고 있음

- 회사 설립 후 머지않아 1969년 시즈오카 현에 있는 외주처의 다이캐스트공장을 매수한 것을 계기로, 다이캐스트 주조기술을 철저하게 연구한 것도 비약하는데 큰 초석이 되었음
- 그 상징이 된 것이, 업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다이캐스트 주조제법에 의한 소형엔진용 피스톤의 제조기술의 확립임
- 그라비티(gravity) 제법으로 종래의 제법에 비하여, 가공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, 깎아내는 작업에 의한 재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. 그 결과 20% 전후의 비용절감을 가능케 했음

#### □ 자동차업체들로부터도 주목

- 오랫동안 농업기계나 산업기계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나, 근년에는 자동차 이륜차 업체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음. 다이캐스트피스톤은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어냈음
- 기술이 확립된 이후 45년 걸려 드디어 인정받았다고 함. 앞으로 자동차, 이륜차용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큼
- 가쓰모토 회장은 창업하기 전, 오사카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경험했음
- 영업을 담당, 어디에도 있는 것을 대량으로 비싸게 팔고 오라는 당시의 상사로부터의 엄격한 지도에 진력이 났던 기억이 선명함
- 자신의 원점은 거기에 있고,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것, 다른 곳보다 우수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임. 그 자세는 회사설립이후 반세기를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음
- 신규 사업인 터치패널에도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정신이 관통하고 있음
- 2012년, 가쓰모토 회장이 중국에 있는 일본계 벤처기업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것이 터치패널을 시작한 계기였음
- 이 기업에 출자, 제조도 담당하게 되어, 2013년에는 중국 후저우(湖州)시에 100% 출자, 「湖州勝僖電子科技」를 설립,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했음.
- 터치패널은 화면에 표시된 아이콘 및 단추를 직감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, 여러 가지 기기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음
- 발매기, ATM 등에서 사용되어 손가락 하나로 조작하는 저항막식으로 스마트폰, 디지털 카메라 등과 같이 2개의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, 축소할 수 있는 정전용량식 등이 있음

- 관련한 터치패널은 정전용량식으로, 금도금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외주부의 금속배선을 종래의 3개 공정에서 1개 공정으로 줄인 외에, 마스크 공정도 필요 없게 되어 제조단가를 낮추었음
- 종래 정전용량식은 소량의 생산이라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, 용도가 스마트폰 등 대량생산하는 기기에 한정됨
- 그래서 보다 저렴한 제조기술을 강점으로 다품종소량 수요를 개척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
- 이제까지 카네비게이션시스템 화면, 의료기기의 모니터 등 여러 분야에서 채택되었음
- 수년 후에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, 가쓰모토 회장은 역시 목표로 한 것은 틀림없었으며, 더욱 인정받는 시기에 대비하여 노하우를 축적하여 체력을 기르겠다고 함

#### □ 그룹사에서는 고급 우메보시(매실장아찌)

- 그룹사에 우메보시를 제조, 판매하는 쇼키바이(勝僖梅)가 있음. 현지 특산물인 알갱이가 큰 매실, 난고우메(南高梅)를 독자적인 제법으로 담은 고급우메보시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음
- 원래 와카야마현 미나베초에 있었던 마찰재의 공장을 폐쇄할 때, 동 공장근무자 36명을 돕고 싶다고 새로운 일감을 찾은 것이 계기였음
- 회사를 설립한 1987년 당시는 알갱이가 작은 매실이 잘 팔려, 알갱이가 큰 매실은 팔리지 않았음
- 그러나 가쓰모토 회장은 소금과 산을 제거하여 맛있는 맛으로 바꾸면 새로운 니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음
- 이러한 발상은 적중함. 다른 곳과는 다른 노선을 걸어온 쇼키바이는 종업원의 고용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, 그룹의 지명도를 높이는데도 크게 공헌하고 있음

#### 【기업정보】

▽소재지=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니시하마 789-3	▽설립=1968년 2월
▽사장=가쓰모토 마사토(勝本 真人)	▽매출액=약 87억엔(2018년 1월기)
	▽홈페이지= <a href="http://w-ksk.co.jp/">http://w-ksk.co.jp/</a>

#### < 참고자료 >

경제산업성, 『지역미래견인기업』 2019년 2월 7일 <https://meti-journal.jp/p/3753-2/>